[2010년 4월 10일 국가직 9급 국어 기출 문제와 해설]

- 웅진패스원 「신국어」 신동수 선생 -

문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그는▽가만히▽있다가▽모임에▽온▽지▽두▽시간▽만에▽돌아가▽버렸다.
- ② 옆집▽김씨▽말로는▽개필이▽좋다는데▽우리도▽언제▽한▽번▽같이▽갑시다.
- ③ 그가▽이렇게▽늦어지는▽걸▽보니▽무슨▽큰▽일이▽난▽게▽틀림▽없다.
- ④ 하늘이▽쏟린▽것인지▽몇▽날▽몇▽일▽을▽기다려도▽비는▽그치지▽않았다.

정답 : ①

해설 : ① ‘지’, ‘만(에)’이 경과한 시간을 의미하면 띄어 써야 하므로 맞게 되었다.

② ‘김씨’⇒‘김 씨’, ‘한 번’⇒‘한번’ : ‘씨’가 성씨 자체는 붙여 쓰지만, 호칭이나 지칭으로 쓰이면 띄어 쓴다. 여기서는 지칭어로 쓰였다. 그리고 ‘두 번’에 대응되는 ‘한 번’은 띄어 쓰지만, 그 외의 막연한 ‘일차(一次), 일단(一旦)’의 뜻일 경우에는 붙여 쓴다.

③ ‘큰 일’⇒‘큰일’, ‘틀림 없다’⇒‘틀림없다’ : 다루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범위가 넓은 일이나 중대한 일을 가리키거나, 큰 잔치나 예식을 치르는 일인 대사(大事)를 뜻하는 경우 복합어가 되어 붙여 쓴다. ‘틀림없다’도 복합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④ ‘몇 일’⇒‘며칠’ : ‘며칠’은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리대로 적는다.

문 2. (가) 상황에 어울리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것은?

(가) 상황 :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자주 다투는 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충고의 말을 하려 한다. 내용은 삶과 관련하여 ‘조화(調和)의 가치’에 대한 것으로하고자 한다.

(나) 조건 : ㉠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을 이용한다.

㉡ 유추와 대조의 표현 효과를 살린다.

㉢ 가치의 요소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① 이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다. 이는 음식을 씹되 그 맛을 모르고, 혀는 맛볼 수는 있으나 맛이 우러나게 씹을 수는 없다. 이 둘이 어울려 제 기능을 다할 때 음식으로부터 즐거움과 건강을 얻을 수 있듯이,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존재하기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 ② 분수와 폭포는 영원한 대립자이다. 폭포는 지하를 향해 끝없이 하강하려 하지만, 분수는 천상을 향해 부단히 상승하려고 한다. 폭포가 철저히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려 한다면 분수는 이러한 법칙에 반대하고 저항한다. 이 두 개의 의지는 결코 서로 만나 이웃을 이루는 일이 없다.
- ③ 광명과 암흑은 정반대의 현상이다. 그러나 광명이 있을 때 비로소 암흑이 생겨난다. 촛불로 인해 찾아 온 광명은 암흑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촛불로 밑에 암흑을 불러들인다. 광명이 없는 암흑은 다만 죽어 있는 정적에 지나지 않는다. 광명은 암흑을 깨어나게 한다.
- ④ 인간에게 역사와 신화의 두 다리가 있다. 역사는 먹고 자고 입는 일상의 울타리 속에서 움직이며, 신화는 사랑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초월의 언덕 위에서 행동한다. 밥은 역사의 양식이며 술은 신화의 양분이다. 이 둘 모두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술 없이는 살아도 밥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답 : ①

해설 :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 문제이다.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로 유추하되 조화의 가치를 암시하면서 충고하는 글이 이에 부합된다.

유추란 유사성을 지닌 다른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전개 방식이다.

①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조화 속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대립적 속성을 지닌 ‘이’와 ‘혀’의 기능을 통해 유추적으로 서술하였다.

②, ③, ④는 대립적 성격을 지닌 두 사물의 속성을 대비하여 서술했지만, 유추의 전개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거나 (가)에서 말한 조화로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암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문 3. 밑줄 친 부분의 활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생각과 달리 네 말이 맞는다.
- ② 유달리 가문 그해 봄에는 황사도 많이 왔다고 한다.
- ③ 나는 저린 어깨 때문에 가방을 제대로 들 수가 없다.
- ④ 그 모임의 분위기에 걸맞는 옷 좀 골라 주세요.

정답 : ④

해설 : 용언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형용사는 어미 활용이 일부 제한된다. 즉 현재 관형사형 어미(-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ㄴ/는(다)],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등과 결합되면 비문이 되는 것이다. ④‘걸맞다’는 형용사이므로, ‘걸맞는’으로 활용할 수 없고 ‘걸맞은’으로 써야 한다.

- ① ‘맞다’는 동사이므로, ‘맞+는(다)’의 활용이 가능하다.
- ② 동사 ‘가물다’는 ‘ㄹ탈락 용언’으로, ㄹ받침이 이어지는 ‘-ㄴ, ㅂ, 시, 오’ 등의 앞에서 탈락한다. 따라서 ‘가물+ㄴ=가문’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 ③ 동사 ‘저리다’의 관형형은 ‘저리+ㄴ=저린’의 형태가 맞다.

문 4.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과학사(科學史)를 살펴보면, 과학이 가치중립적이란 신화는 무너지고 만다. 어느 시대가 낳은 과학 이론은 과학자의 인생관, 자연관은 물론 당대의 시대사조나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요소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총체적 산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느 시대적 분위기가 무르익어 어떤 과학 이론을 출현시키는가 하면, 그 배출된 이론이 다시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되먹임 되어 직접 또는 간접의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이다.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사회적 다윈주의가 출현한 것은 그 가장 극적인 예이고, ‘엔트로피 법칙’이 현존 과학 기술 문명에 깔린 발전 개념을 비판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틀이 되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다.

- ① 기상천외한 그들의 행적은 하나의 신화로 남았다.
- ②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짧은 기간 동안 고도성장의 신화를 이룩하였다.
- ③ 월드컵 4강 신화를 떠올려 본다면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④ 미식축구 선수 하인즈 워드의 인간 승리를 보면서 단일민족이라는 신화가 얼마나 많은 혼혈 한국인들을 소외시켜 왔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정답 : ④

해설 : 다의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오랫동안 과학이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과학은 사회·경제·문화적인 여러 요소들과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총체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화’의 문맥적 의미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존재한 어떤 사유를 일컫는 말이다. ④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①은 신비한 이야기, 그리고 ②, ③은 절대적이고 획기적인 업적을 비유한 말이다.

문 5.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알리는 말씀>

노후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께서는 차량을 가급적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입주민 외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절대로 금합니다. 또한 단지 내에도 방문객 이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2010년 4월 10일

○○ 아파트 관리소장 백

- 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표현 중에서 ‘금하다’는 이 글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금지합니다’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 ② ‘차량의 출입을 절대로 금합니다.’라는 표현 중에서 ‘절대로’라는 단어는 전체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으므로 빼는 것이 좋겠다.
- ③ ‘입주민’이라는 낱말은 ‘새로 지은 집 따위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글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민’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 ④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키고’라는 표현 중에서 ‘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주차하시고’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정답 : ①

해설 : ‘금하다’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다’는 뜻을 지닌 말로, ‘~에(게) ~을/게/도록 금하다’ 형태로 쓰인다. ‘~을 금하다’나 ‘금지하다’는 모두 맞는 말이다.

- ② ‘절대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말인데, 뒤에 ‘방문객 이외에’라는 말이 있으므로 모순된다. 빼는 것이 좋다.
- ③ ‘입주민(入住民)’은 새로 지은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나, 다른 고장에서 살다가 옮겨 와서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주민’을 바꾸어 쓰는 것이 바르다.
- ④ 사동 표현 ‘-시키다’를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다’로 환치해 보아 부자연스러우면 남용된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문 10.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김정호는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군현지도, 방안지도, 목판지도, 첩첩식지도, 휴대용지도 등의 성과를 독자적으로 종합하고,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대동여지도의 가장 뛰어난 점은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대축척지도의 두 계열, 즉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후 민간에서 활발하게 전사되었던 전국지도·도별지도와 국가와 관아가 중심이 되어 제작했던 상세한 군현지도를 결합하여 군현지도 수준의 상세한 내용을 겸비한 일목요연한 대축척 전국지도를 만든 것이다.

대동여지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호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목판본 지도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소장, 휴대, 열람하기에 편리한 데에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18세기에 상세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지도는 일반인들은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지도였다. 김정호는 정밀한 지도의 보급이라는 사회적 욕구와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였던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러나 흔히 생각하듯이 아무런 기반이 없는 데에서 혼자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대동여지도와 같은 훌륭한 지도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비변사와 규장각 등에 소장된 이전 시기에 작성된 수많은 지도들을 검토하고 종합한 결과인 것이다.

- ① 대동여지도는 일반 대중이 보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었다.
- ②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진 토대에는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갖가지 지도가 있었다.
- ③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만들어진 지도여서 다량으로 제작, 배포될 수 있었다.
- ④ 대동여지도는 정밀한 지도 제작이라는 국가 과제를 김정호가 충실히 수행해 만들었다.

정답: ④

- (㉠)이라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니 욕심이 생긴다.
-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작년 것과 (㉡)하다.
- 부정부패를 (㉢)하고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법이다.
- 공무원은 (㉣)의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	㉢	㉣
① 見勿生心	大同少異	發本塞源	不偏不黨
② 見物生心	大同小異	拔本塞源	不便不黨
③ 見物生心	大同小異	拔本塞源	不偏不黨
④ 見物生心	大同少異	發本塞源	不偏不黨

정답 : ③

해설 : 문맥에 맞는 한자 성어를 독음하고 표기하는 문제이다.

- ㉠ 見物生心(볼 건, 만물 물, 날 생, 마음 심) :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 ㉡ 大同小異(큰 대, 같을 동, 작을 소, 다를 이) :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
- ㉢ 拔本塞源(뽑 발, 근본 본, 막힐 색, 근원 원) :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함.
- ㉣ 不偏不黨(아닐 불, 치우칠 편, 아닐 부, 무리 당) :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

문 15. 밑줄 친 단어 중 우리말의 어문 규정에 따라 맞게 쓴 것은?

- ① 윗층에 가 보니 전망이 정말 좋다.
- ② 뒷편에 정말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다.
- ③ 그 일에 익숙지 못하면 그만 두자.
- ④ 생각컨대, 그 대답은 옳지 않을 듯하다.

정답 : ③

해설 : 맞춤법과 준말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 ① '윗'이 된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 오면 '위'로 쓰므로, '위층'이 맞다.
- ② 마찬가지로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야 하므로, '뒤편'으로 써야 한다.
- ③ '익숙하다'처럼 '-하' 앞에 안울림소리가 오면 준말에서는 '-하'가 탈락한다. 따라서 '익숙지'로 쓰는 것이 옳다. 이는 ④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건대'이다.

문 16.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이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gas - 가스, 전주(지명) - Jeonjoo
- ② center - 센터, 서산(지명) - Seosan
- ③ frypan - 후라이팬, 원주(지명) - Wonju
- ④ jumper - 점퍼, 청계천(지명) - Chonggyechon

정답 : ②

해설 : ① 전주(지명)의 로마자 표기는 'Jeonju'이다.

- ③ 외래어 표기 규정에서 'f'는 'ㅍ'으로 적기로 하였다. '프라이팬'이 맞다.
- ④ '점퍼'와 '잠바'는 모두 맞는 표기이고, '청계천'의 로마자 표시는 'Cheonggyecheon'이 바르다.

문 17.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성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따르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② 중성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따르면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 ③ 현대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한글 자모의 순서는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자모 순서와 같다.
- ④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ㄱ'을 '기역'이라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색해 온 저자. 그는 한자를 깊이 읽어야 할 이유를 이리 설명한다.

“좋은 싫든 우리는 한자를 통해 빚어진 문화적 존재다.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의 깊은 굴절 마디마디를 기억하고 있는 역사의 아이콘(이미지)이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문화적 통찰과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구석기 시대의 그림문자에서 갑골문, 금문, 전서, 예서, 초서, 행서, 해서 그리고 간자체에 이르기까지 한자 서체의 변화를 더듬으며 문자와 인간의 발자국을 함께 훑는다. 초서와 행서의 시대를 들여다보자. 거대한 한나라가 중앙집권의 고삐를 놓치면서 들이닥친 위진 남북조는 ‘인디밴드’ 같았던 도가가 한순간 주류로 올라선 시기였다. 유연한 시대의 바람을 타고 한나라의 예서는 미적 감성을 듬뿍 담은 글꼴로 변신한다. 정치적이기만 했던 한자의 글꼴이 비로소 예술적 감성의 세례를 받았으니 예서의 필획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 준 것은 왕희지였다.

그러나 한자의 글꼴은 송, 명대에 이르러 점차 생명을 잃어간다. 그리고 청 말기 혁명의 와중에 최대의 시련을 맞는다. 20세기 초 지식인들은 망국의 원흉으로 ‘유교의 그릇’인 한자를 지목했다. 너나없이 ‘한자불멸, 중국필망(漢字不滅, 中國必亡)’을 외쳤다. 그러나 한자는 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중국인들은 깨달았다. ‘한자멸, 중국역멸(漢字滅, 中國亦滅)’

이 모순의 현장에서 절충을 시도한 게 마오쩌둥이다. 그는 한자의 몸 일부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한자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오늘날의 간자체다. 한자는 뜨거운 풀무 속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버려졌다. 영어가 판을 치는 세계의 한복판을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자. 이 끈질긴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건 상형의 힘이라고 한다. 그게 뭘까? 그림의 힘이다. 이미지의 힘이다. “이미지란 설명을 넘어서 직관에 던지는 강속구다. 말하자면 ‘오프라인의 모바일’이랄까.” 마야호로 한자는 아이콘과 텍스트가 합성된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지금 그 한자를 바라보며 한자가 숨기고 있는 깊은 이미지의 바다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있다.

- 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한자의 상형성과 表意性에 대해 논하고 있다.
- ② 한글은 表音文字이지만 기본형을 유지하는 형태 위주의 표기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表意文字인 한자와 상통하는 특성을 살린 표기법이다.
- ③ 한글은 表音文字이므로 이미지를 배제한 문자라고 할 수 있다.
- ④ 이미지와 텍스트의 혼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한문의 혼용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문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추리·상상하는 문제이므로 문제의 난도가 높은 편이다.

이 글은 한자의 역사를 다룬 책에 대한 서평(書評)으로 보인다. 지금의 디지털시대까지 살아남은 상형문자(象形文字)이자 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자의 서체(書體) 변화 과정과 그 생명력에 관해 서술한 글이다.

문제의 선지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단락이다. 즉 ‘(한자의) 끈질긴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건 상형(그림, 이미지)의 힘이라고 한다.’라는 문장부터이다. 표의문자인 한자는 직관적 감성과 이미지를 통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다시 말해서 아이콘(이미지)과 텍스트가 합성된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로 이 시대에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이 글에서는 송, 명, 청을 거치면서 위기를 맞았던 한자가 간체자로 새롭게 버려지고, 본래 한자가 지닌 상형성과 표의성은 직관적 의사소통의 강화라는 이 21세기에 걸맞은 시대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체의 요지에 부합되는 진술이다.

② 이 글에서 표음문자(表音文字)인 한글의 특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자의 특성과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다. 표음문자는 본래 음성(소리) 위주의 표기법이고 표의문자는 형태 위주의(표의주의적) 표기법이다. 그러므로 한글이 형태 위주의 표기법을 쓰는 경우에는 한자의 특성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③ ②에서 한글이 표음문자이지만 형태 위주의 표기법을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한자가 지닌 이미지나 시각적인 효과도 활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지가 배제된 문자라고 단정하면 바르지 않다. ②와 ③은 논리가 배치되는 진술이므로, 이 중에서 답을 구하여야 한다.

④ 한자는 이미지를 통한 직관으로 텍스트의 해독력을 강화한다고 했으므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혼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는 글의 내용상 한자를 혼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